

‘찐한 소통’ 두 번째

일 시 : 2013.07.23

대담자 : 이영아, 강성원, 남일, 홍선

자기소개

강성원(이하 강) 나랑 이영아 활동가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은 케냐를 떠날 때 주민들이 케냐를 잊지 말라며 준 옷이다. 나는 2007년도에 케냐 2년 그리고 지구촌 공생회 신분으로 캄보디아 1년 다시 케냐에 돌아가서 2년 동안 활동했다. 활동하기 전에는 인도 정토회 수라타 아카데미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이영아(이하 이) 나는 회사를 그만두고 국제개발에 관심이 있어 국제대학원에 진학하였지만 내가 생각하는 현장과 학교에서의 현장이 다르다는 걸 느끼고 현장으로 갔다.

홍 선(이하 홍) 나와 남일 활동가의 공통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다. 우리는 대학 진학으로 처음 서울에 올라왔다. 이 당시에 대학에 왔을 때 세상을 바꾸려는 열정과 열망이 있었다. 캠퍼스 근처 관악구에는 달동네들이 많았다. 이 중 한 지역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공부방이 있었다. 산동네 공부방에서는 아이들과 학생들만 있는 게 아니라 당시에 한국의 주민 운동가들이 ‘가난한 사람이 세상의 주인이다.’ 라는 신념으로 지역운동을 했다. 이런 활동 속에 지금의 강인남 대표님을 만났다.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 대학 졸업 후 남편 남일과 같이 관악 사회복지관에서 활동했다. 남편인 남일 활동가는 지금 모든 주민이 아티스트가 되는 문화 사업을 하고 있다.

Q1. 활동하기 전 고민과 활동을 하게 된 계기는?

남일 (이하 남) 나는 어렸을 적 꿈이 과학자였다. 수학하고 과학 교과서만 봤다. 하지만 대학 진학 후 충격적인 경험을 했다. 새로운 세상이었다. TV에서 보던 세상과 책에서 보던 세상이 너무 다른 세상이었다. 90년 대 관악 지역은 온 지역이 심하게 낙후 된 산동네였다. 그 모습을 학교에 가다가 보았다. 그 모습을 보고 느낀 게 많아 그 길로 산동네로 들어갔다. 그래서 인생의 방향을 수정하기로 결심을 가지고 결국 대학에서는 전혀 공부하지 않고 지역 공부방에서만 활동하면서 지역주민들을 만났다. 현장이 아니라 학교에서만 공부를 했다면 대학 졸업 후 유명한 과학자가 되거나 대기업에서 고가의 제품을 만들며 돈 걱정 없이 살았겠지만 약간은 부족하지만 행복한 활동을 하는 지금이 제일 행복하다.

홍) 나는 남일 활동가와 활동 동기가 비슷하기는 하지만 강인남 활동가와 선동수 활동가를 보면서 저렇게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라는 느낌을 받고 활동하기 시작했다.

강) 사회복지 전공이었다. 대학 선배 중에 삼성에 다니는 선배들이 후배들 밥 사준다고 왔

다. 나는 그 모습을 보고 그게 성공적인 모습이 다고 생각하며 저녁식사 자리에 찾아갔다. 나는 물어봤다. “재미있고 행복하세요?” 선배 왈 “내가 행복해 보이니?” 라고 힘든 표정으로 되물어봤다. 아무리 대기업 들어가서 돈을 잘 번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었다. 왜 돈이 있어도 행복하지 않을까 라는 고민을 하다가 정토회에 들어갔다. 그 당시에 정토회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지만 그냥 가보자라는 생각으로 인도 정토회로 떠났다. 내면의 고민을 가지고 떠난 인도에서 나는 한 달 동안 재미있게 놀았다. 특히 마을주민들과 논 게 제일 재미있었다. 그런 기쁜 마음을 안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또 다시 인도로 떠나기 전 마음과 비슷한 고민을 또 하고 있었다.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다가 정토회에서 인도에서 1년 활동을 제안했다. 그래서 다시 인도로 떠났다. 그 곳을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서 수련을 하고 활동을 하는 곳이다. 이곳에서 처음으로 부처님을 만났다. 내가 활동하던 지역은 성지순례 지역이기도 하고 불가촉천민들이 모여 사는 지역이기도 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중에 못 가진 자의 삶이 너무나 치욕스럽고 슬퍼보여서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 활동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 이후에는 한국에 다시 들어와서도 활동에 집중했다.

이) 나는 사실 평범한 사람이었다. 공부를 잘하지도 않고 못 하지도 않는 평범했다. 학부 전공은 컴퓨터공학이었다. 그 때 당시에는 해외여행이 편하지 않았고 내 전공의 특성 상 세상의 일과는 멀어지기 일쑤였고 학과의 선배들도 본인의 전공을 살려서 일을 하고 나도 그런 모습을 보며 그냥 기본대로 살았다. 그러다 처음으로 캄보디아로 여행을 갔다. 첫 여행이라 모든 게 다 설렘이었다. 캄보디아에서는 앙코르 왓만 갔는데, 그 유적지에서 녀마주이 아이들과 구경하는 아이들을 보고 나서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우연히 현지인 친구를 사귀어서 집으로 초대했는데, 지금은 물론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너무나 열악한 주거환경에 또 충격을 받았다. 그러고 나서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서 평소와 다를 게 없는 소비를 좋아하고 자본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 나의 길을 찾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국제개발현장에서 활동하는 사람을 만나보고 그 사람들이 멋지다는 생각이 들게되어 나에게도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도 되겠다 싶어서 회사를 그만두고 현장에 들어오게 되었다.

Q2. 본인의 현장에서 활동을 유지해 나가는 동기와 사명은 무엇일까?

홍) 나는 나를 사랑해 주는 주민들인 것 같다. 내가 활동을 하기 전까지 인생을 살면서 무언가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보고 꿈꾸는 건 많지 않았던 것 같다. 하지만 활동을 시작하고 40대에 들어오면서 주민들이 나를 무언가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받아주고 나를 동지로 생각해 주는 사람이 많다보니 그게 나의 활동의 힘이다. 또 하나는 현장에서 나 스스로가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다. 그런 나의 모습이 참 만족스럽다.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사회성을 배우고 인간이 되어 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이런 것에 큰 만족감을 가지고 있다. 이 부분이 가장 크다.

Q3. 그럼 현장에서 괴롭고 힘든 건 뭔가요?

남) 사실 집안 경제력이 넉넉하지 못 했다. 동생의 대학진학으로 인한 등록금 부담과 옆친 데 덮친 격으로 집에 부채가 쌓이게 되면서 잠깐 현장을 떠나 회사에 들어가 돈을 벌었다. 열심히 돈을 벌어 재정적 문제를 해결 후 다시 현장으로 들어갔다. 나는 워낙 말이 너무 없다. 난곡에서 활동했을 때 한 목사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시대가 주는 사명과 질문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답을 하고 그것을 위해 활동해라 라는 말을 듣고 활동을 했다. 말수가 적기도 하고 나 스스로 많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귀여워해 주시고 많이들 도와주셨다. 현장에서 활동을 할 때 가장 중요하고 힘든 부분이 가족이 아닐까 한다. 나는 아주 어릴 적부터 부모와 관계가 그리 좋지 않았다. 지금은 결혼생활과 활동모습을 부모님에게 보여드리니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아졌다. 결국 현재는 활동도 행복하고 결혼생활도 행복하다.

이) 난 현장에 나가기 전, 내가 뭔가 도움을 많이 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막상 현장에서는 나는 그들에게 이방인이고 갈등을 일으키는 요소가 되는 이질적인 존재라는 것을 느끼고 많은 회의감을 느꼈다. 그리고 내가 작지만 그들에게는 거대 자본과 인력으로 꾸며진 프로젝트로 느낄 수 있는 것을 한다는 게 그들의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게 아닌가하고 많은 걱정이 되었다. 현지 사람들도 잘 알고 있다. 케냐에서는 주민들이 나보다 더 NGO가 어떻게 돌아가고 돈은 어디서 오는 지 잘 알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NGO에 대해 많은 비판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느 한 활동가가 10년은 활동해야지 어느 정도 보이지 5년도 안 되는 경험으로 모든 것을 일반화 시키는 게 너무 무지한 게 아닌가 라는 충고를 받고서 다시 활동에 대한 동력을 얻었다. 이에 최대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활동을 하자라는 생각과 '내가 과연 무엇을 지키고 싶어 했는가?' 라는 생각을 같이했다. 지금은 활동에 대해 생각이 많이 바뀌었는데, 지금은 나라는 존재로 인해 마을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Q4. 이영아 활동가가 했던 고민을 한국주민운동 현장에서도 했을 것 같다. 현장의 고민은 무엇인가?

홍) 사람들은 모두 다르다. 특히나 나와 주민들은 많이 달랐다. 나는 배운 사람이었고 내가 만난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배우지 못 한 사람들이었다. 그 배움의 크기가 사회에서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크게 다르고 내가 쓰는 언어와 주민들이 쓰는 언어가 말은 같을 수 있지만 뜻은 다르다는 점에서 많은 고민이 되었고 갈등상황도 비일비재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내가 주민들을 만나고 이해하고 주민들에게 배우면서 내가 변하고 주민들도 나를 만나며 이해하면서 나처럼 변하는 과정이 있었다. 하지만 이렇게 서로가 변한다고 해도 여전히 서로 다른 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갈등상황은 꼭 가지고 가야할 것이라 생각한다. 결국 지금은 이 힘든 점을 가지고 이해하면서 활동하고 있다.

Q5. 활동가에 돈이란 무엇인가?

남) 내가 처음 2001년도, 관악사회복지단체에서 일하면서 받았던 월급이 53만원이었다. 나는 놀랐다.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활동인데, 돈도 주니 좋았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나고 나는 지금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시작했다. 마을 연예인 육성 사업이다. 그리고 최근에 첫 월급을 받았다. 월급은 50만원이었다. 내 인생에 월급은 50만원인 것 같다. 활동에서 나오는 돈이란 노동자에게는 필요한 보상이라 생각한다. 활동가는 다르게 생각했다. 먹고 살 수만 있다면 돈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점점 나이가 들어가니 가족의 생계 및 의료비 등등 활동의 지속성을 위해서라면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비영리단체에서의 활동은 낭만과 열정이 있지만 신념으로 활동하기에는 너무 힘든 활동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제는 활동가들도 돈을 벌면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보통 활동가라고 하면 단체에서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 나는 활동가란, 사회변화를 갈망하고 열망하는 사람이 생각한다. 예를 들어 박원순 시장이 공무원이지만 사회변화에 열망을 가지고 있고 행동으로 드러난다면 충분히 박 시장도 활동가라고 생각한다. 그것을 의식적으로 각성된 활동가라고 생각한다. 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싶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활동가도 투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예전 직장은 IT분야였다. 아무리 투잡을 해도 IT일을 하면서 활동가 일을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투잡도 동네에서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나서 엔터테인먼트인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 사업을 하고 있다. 나 같은 경우 운이 좋은 게 옆에 있는 활동가인 부인이 돈을 잘 벌어서 크게 힘들지 않다. 결국 돈은 건강을 유지하고 활동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는 활동을 해야 하지 않나 싶다.

강) 나에게 돈이란, 삶에서의 돈과 현장에서의 돈으로 정리하였다. 삶에서는 돈이 필요하다. 내가 케냐에서 활동하면서 나의 소신보다는 단체의 비전으로 사업이 진행이 된다. 보통 그렇게 되면 단체를 키우기 위해서 홍보성 사업을 하고 이 홍보를 위해 현장에는 피해를 주거나 효과성 없는 활동이 될 수 있겠지만 결국은 단체의 이득을 위한 사업으로 흘러가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현장의 활동가는 현장의 문제로 본부와 싸우고 본부는 사업부와 홍보부에서 또 다른 싸움이 일어난다. 결국 작은 단체에서 들어가서 소신 있게 활동하는 게 최고라 생각한다. 하지만 작은 단체 돈이 없기 때문에 소신을 지키면서 돈을 적게 받을 수 있나 라는 고민을 생각했었다. 인도에서 있던 중 나와 같이 정토회 활동을 했던 친구들도 나와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 활동을 하고 싶는데, 돈도 벌어야 하고 하지만 둘 다 할 수 있는 현장은 없었다. 결국 이런 고민을 가지고 삶을 같이 공유하고 공동체를 만들었다. 그 공동체는 다양한 활동과 시도를 하고 있다. 그런 모습을 보고 나도 삶을 같이 공유하고 돈 보다는 활동에 더 집중하자 라는 생각했다. 그래서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희망과 힘이 되는 사례를 만들어보고자 한다.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을 가지고 공동체 활동을 하고 싶다.

현장에서의 돈, 본부에서는 후원자가 있으니 지역을 물색하라 라고 한다. 이런 지시를 받으면 기쁘기보다 두렵다. 왜냐하면 현장에 돈에만 의존하고 사람과 사업이 없는 돈만 있는 활동의 위험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사업의 돈을 자기중심으로 지역중심으로 준비되어 있는 것에 돈이 들어가야지 돈이 먼저 있고 이에 사람이 들어가고 사업이 들어가는 건 현장의 고민이자 위험요소인 것 같다.

Q6. 활동과 연애는 적일까요? 시너지일까요?

이) 저희가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커플인 것을 인지하고 본부에서 파견을 허락해 주었다. 물론 현장에서 우리 둘만 활동하지 않고 공동체 생활을 했지만 이외에 현장에서 가지는 고민을 서로 이야기하고 공감해 줄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우리 둘이의 관계에 따라 지부 내 분위기가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했다.

홍) 연애와 결혼 다르지만, 아직 우리는 아기도 없이 둘이 살고 있다. 그래서 아직 아기가 있는 결혼의 삶을 잘 모른다. 현재는 동거하는 느낌으로 살고 있다. 활동에 결혼은 안정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주는 것 같다.

Q7. 강성원 활동가는 결혼 하고 싶으세요?

강) 저는 헤어지기 싫어서요.

청중과의 대화

Q1. 부모와의 관계와 활동의 지속성은?

남) 할 수 있는 한 부모님께 효도해야 된다. 하지만 활동하면서 부모를 100% 만족시키기 어렵다.

이) 나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에게 촉망받는 아들이었다. 자식에 대한 욕심이 많으셔서 변호사나 회계사 등 전문 직업을 가지기를 원하셨다. 하지만 지금은 자주 현장에 나가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부모님이 처음에 걱정을 많이 하셨다. 지금은 다시 밖으로 나가서 활동을 하고 집에 돌아와도 부모님은 물론 주변 사람들도 언제 다시 나가냐는 인사가 첫 인사가 되었다. 나는 내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부모에게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부모님에게 해 드릴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인 것 같다. 하루는 부모님이 그렇게 사는 내 모습을 보고서는 '그렇게 사는 게 행복하냐?' 라는 질문에 '행복하다.' 라고 대답을 했다. 지금은 나의 이런 모습을 인정해 주고 지지해 주고 있다. 하지만 물론 부모님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다. 만약 내가 활동에 대해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인다면 부모님도 내 활동을 더 흔들 수 있는 존재가 되기에 나 스스로 확신에 찬 활동을 해야 건강한 활동을 한다. 그리고 최소한의 집안 분담을 해야 될 것 같다.

Q2. 결혼하신 이유는? 결혼 후 좋은 점은?

홍) 결혼하게 된 이유는 어느 시점에서 헤어지는 것 보다 사랑하니깐 결혼을 했다.

남) 결혼을 하고 나서는 내가 더 후회했다.(웃음)

Q3. 결혼에 대한 걱정은?

이) 결혼에서 여성으로서 많은 부분을 포기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다. 지금 옆에 있는 남자 친구(강성원 활동가)가 계속 결혼을 하자고 한다. 그 이전에 결혼을 한 번도 생각해 본적이 없는데, 이 후에 결혼을 해볼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예전에는 난 외모지상주의자였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니 외모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았다. 가장 중요한 건 나를 얼마나 생각하고 인생의 동반자로서 얼마나 함께 할 수 있는가가 포인트인 것 같다. 지금은 언제 할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결혼을 하게 될 것이다.

Q4. 두 커플의 성향이 서로가 다른 것 같다. 이 점에서 서로에게 본받고 싶은 점이 있나?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홍) 남편인 남일 활동가는 항상 사색하는 모습과 그리고 어떤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고 하는 것 들이 마음에 들었고 내가 배울 점이다.

남) 아내가 학교에서 선배였다. 2살 위 선배는 학교에서 큰 차이이다. 지금도 물론 나의 선배다. 사람보다는 물체 및 물리에 관심이 많았는데, 아내가 사람에 대한 관심이 컸다. 그런 아내의 모습인, 사람에게 관심을 주고 집중하는 사람중심의 활동을 하는 것들이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것 같다. 하지만 결혼 후 아내의 너무 사람만 보는 것에 어느 순간 답답했다. 왜냐하면 본인을 잘 챙기지 못하기 때문이다.

강) 무언가 맞는다고 생각하는 거에 노력하고 습관을 바꾸려는 그 모습이 좋다. 예를 들어 플라스틱 안 쓰기 물 아껴쓰기 등등...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변화하려는 모습이 좋다. 활동에서는 원칙을 고수하는 그 모습이 좋았다.

이) 사람을 끄는 힘이 있다. 나랑 커뮤니케이션 방법이 달랐다. 나는 안 되는 건 되게 하려고 하고 말 하고 싶은 것은 꼭 해야 되는 성격이다. 그런데 남자친구는 화가 나는 순간에도 화를 내기 보다는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하는 성격이다.

Q. 지역사회에서 활동이 사람이 변한다?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무엇이 어렵고 어떻게 노력해야하는지?

남) 주민운동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냐 이거 누가 증명시킬 수 있을 까. 결국 이걸 증명할 수 없는 것이다. 나는 주민운동이 세상을 극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물론 주민운동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존 내쉬가 찾아내고 개발한 평행이론에서 비롯한 게임이론에서는 인간들은 서로 협력하지 않는다.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거기에서 중간지점을 찾거나 대안을 찾는 것이다. 혈연관계인 경우 협력이 잘된다. 주민들과의 경우에도 잘 아는 경우 협력이 잘된다. 하지만 잘 모르는 경우에는 서로가 협력하기가 힘들다. 나는 주민운동의 큰 강점이 서로간의 신뢰를 쌓고 지역문제

를 해결하고 개선하고 발전하는 것이 주민운동의 장점이 아닐까 한다. 제가 몸담고 있는 분야는 사회적 경제로, 많은 사람들이 협력하면서 발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핵심에는 주민운동이고, 그러므로 주민운동이 잘 되어야 한다.

나는 내가 50만원으로 먹고 산다고 해서 50만원으로만 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Q. 추가질문) 안 된다. 힘들다고 말한다면 이걸 무엇일까?

남) 한국이 아닌 외국의 경우에는 국제관계가 있는 것 같다. 국제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나누어 먹을 수 있는 파이가 많고, 개발도상국은 나누어 먹을 수 있는 파이가 적고 경쟁도 심해졌다. 주민운동의 가지고 있는 맹점 자체가 어제와 오늘 같고 오늘이 어제 같다는 말을 한다. 결국 변화가 더딘 현상이라는 것이다. 특정한 이슈가 많지 않은 이상 일상생활에서 변화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다. 요즘은 이슈가 없는 시대다. 한국의 경우도 같다. 그런 여러 가지 의문들로 의해서 변화를 경험하기에는 쉽지가 않다. 그래서 느리게 변화하는 걸 버티고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강) 나는 최근 한국에 돌아오기 전 케냐에서 학교를 짓기 위해서 마을 조사를 했다. 보통 마을 문제인 물, 자원 문제들이 보이기는 했다. 그러나 나는 과연 주민들이 변화의 의지가 있거나 마을의 부족하고 필요한 것을 알고 있느냐가 사업선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였다. 내가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으면 여기저기서 돈들이 들어온다. 한 사업이 끝나고 돈이 끊기면 자생적으로 어떻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해야 된다. 여기서 갑자기 외부자원이 들어와서 돈으로 문제가 끝나다 보니 주민들은 이야기하고 마을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방법을 강구하기보다 그냥 돈으로만 바로 해결되기를 원한다.

Q. 언제 주민과 함께 하고 있다고 드는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는 잘 모르겠다. 프로젝트라는 게 정해진 기한이 있고 계획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상황이 되지 않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과 함께 한다는 느낌은 들지 않는다. 그 이외에 마을사람들이 뜻하지 않게도 나에게 대해 생각해 주는 마음들을 표현할 때 그 순간 내가 주민들과 함께 있구나 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나를 외지인이 아니고 활동가가 아니라 그냥 친구 또는 나를 같은 주민이라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함께 있구나 는 생각이 든다.

홍) 최근에 한 모임에서 갈등상황이 있던 상황이었다. 말이 없던 분인데, 나에게 어떻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도움 요청을 했을 때 주민들과 함께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같이 어떤 걸 보고 같이 미소를 짓고 서로를 바라보는 그 감정들이 함께 있다는 생각이 든다.

Q. 삶과 현장이 동일하지 않을 때 어떠신지?

이) 해외현장에서는 본부 현장과의 다른 현장의 상황과 다른 분위기로 많은 다름이 있었다.

하지만 한국에 와서 보니깐 본부도 또 다른 현장이었다. 지금까지는 꼭 지역에서 일하고 주민과 일하는 게 현장이라고 생각을 했다. 이런 분리해서 보는 내 자신이 부끄러웠다.

홍) 현장은 끊임없이 찾아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 과정 중에 많은 만남이 일어나고 이 만남이 나를 변화시킨다. 여기에서 꼭 삶과 현장을 동일 시키려고 하지 말고 내 주변의 사람과 문제를 놓지 않으려고 하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남) 세상은 정답은 없지만 선택은 할 수 있다. 가끔 어디서 일하자고 하는 제의가 들어온다. 여기에서 선택에 대한 기준이 있다. 기준은 내가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이 기준을 첫 번째로 하고 있다. 물론 이게 옳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주민을 만나는 것을 사명이라 생각한다면 꼭 삶과 현장을 일치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Q. 가장 현장과 활동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홍) 지금 변화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작지만 변화를 보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

남) 주민이 주인공 역할을 하게 만드는 것

강) 자기수행이다.

이) 믿음과 기다림이다. 믿고 기다린다면 서로가 할 수 있는 시간이 다를 뿐 누구나 다 할 수 있다.